

미·이란 협상 재개와 릴리프 랠리: 코스피 6,000선 탈환의 서막

2026년 4월 14일
2026년 4월 14일 글로벌 시황 및
매크로 분석 리포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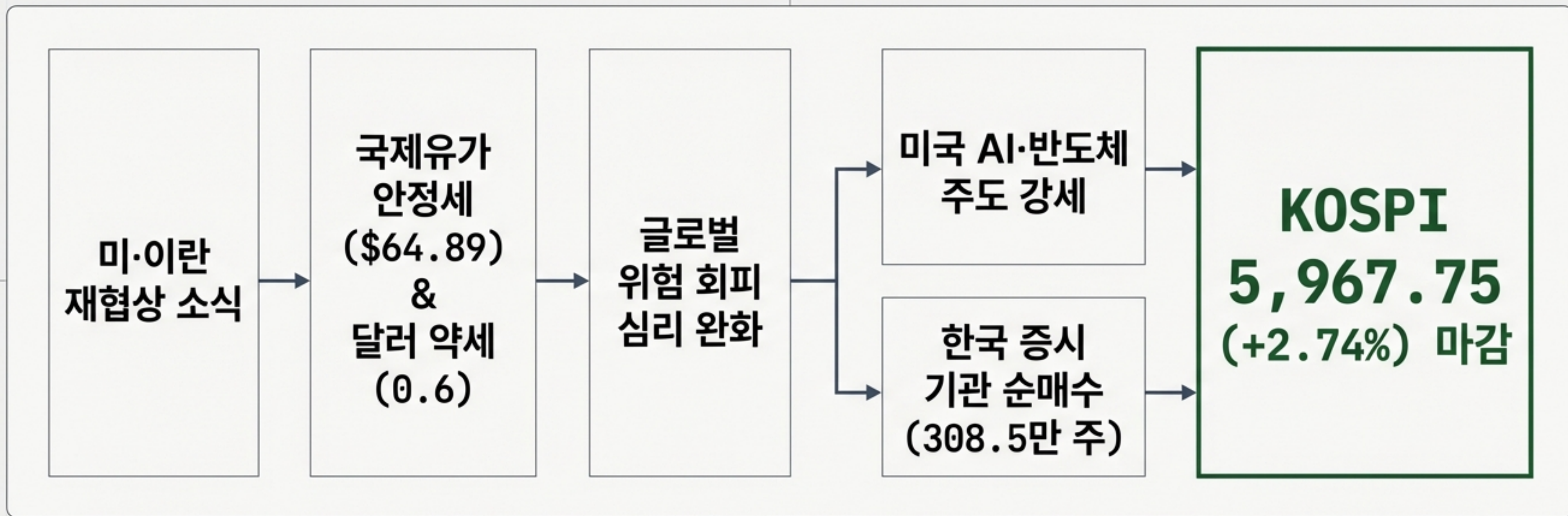
[REPORT_TYPE]:
장마감 리포트

[DATE]:
2026-04-14

[STATUS]:
CONFIRMED



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촉발한 연쇄적 '위험자산 선호(Risk-On)' 회귀



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억눌렸던 투자 심리가 폭발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.
6,000선 돌파 여부가 향후 글로벌 자본 흐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

코스피 6,000선에 근접하며 압도적인 2.7%대 동반 상승 시현

KOSPI

5,967.75

+159.13pt
(+2.74%)



KOSDAQ

1,121.88

+22.04pt
(+2.00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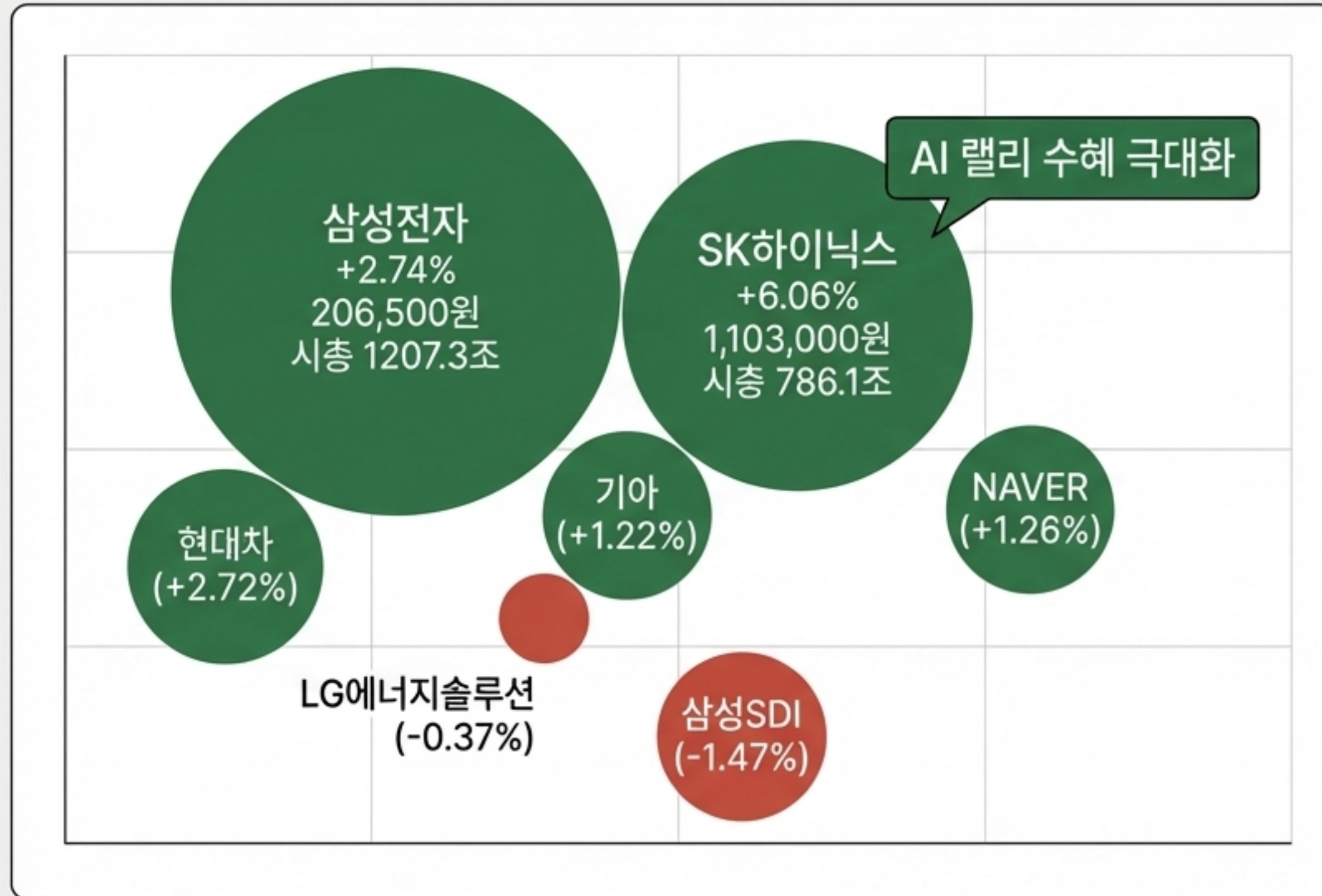
시장 상승의 견인차:
기관 (+308.5만 주)

차익 실현: 개인
(-437.5만 주)

외국인
(-49.8만 주)

기관투자자의 압도적인 순매수가 지수 급등을 주도하며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완벽히 흡수했습니다.

반도체 투톱의 강력한 상승과 전기가스·금융업의 방어적 랠리



전기가스업 (+4.11%)	보험 (+3.93%)	의료정밀 (+3.81%)
철강금속 (+2.24%)	의약품 (+2.01%)	제조업 (+2.01%)

주도주인 고베타 기술주와 방어적 성격의 가치주(유틸리티, 금융)가 결합된 쌍끌이 장세

미·이란 협상 소식에 대한 글로벌 증시의 차별화된 반응 매트릭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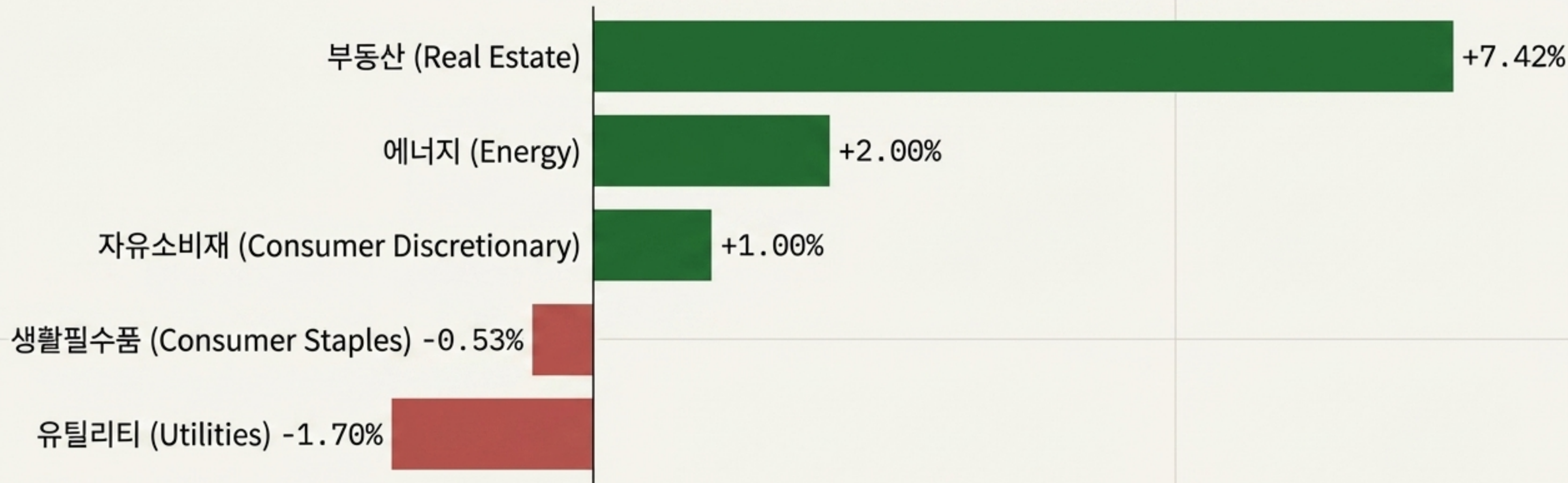
미국 (US)	중국 (China)	유럽 (EU)	일본 (Japan)
S&P 500 6,886.24 (+1.02%)	상하이종합 3,215.00 (+0.45%)	STOXX 50 (+0.62%) DAX/FTSE (-0.17%)	닛케이 225 (-0.17%)
Core Driver 체력과 AI. 샌디스크 나스닥 100 편입 등 반도체 중심 강세.	Core Driver 소비 띄우기. 내수 회복 기대감.	Core Driver 혼조세 속 방산주.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와 교차.	Core Driver 엔화 약세. 수출주 중심의 방어.

아시아는 기술주 강세와 중국 데이터 기대감으로 대체로 상승한 반면, 유럽은 지정학적 요인인 해석에 따라 국가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

S&P 500의 강세와 나스닥의 숨고르기 속 극명한 섹터별 로테이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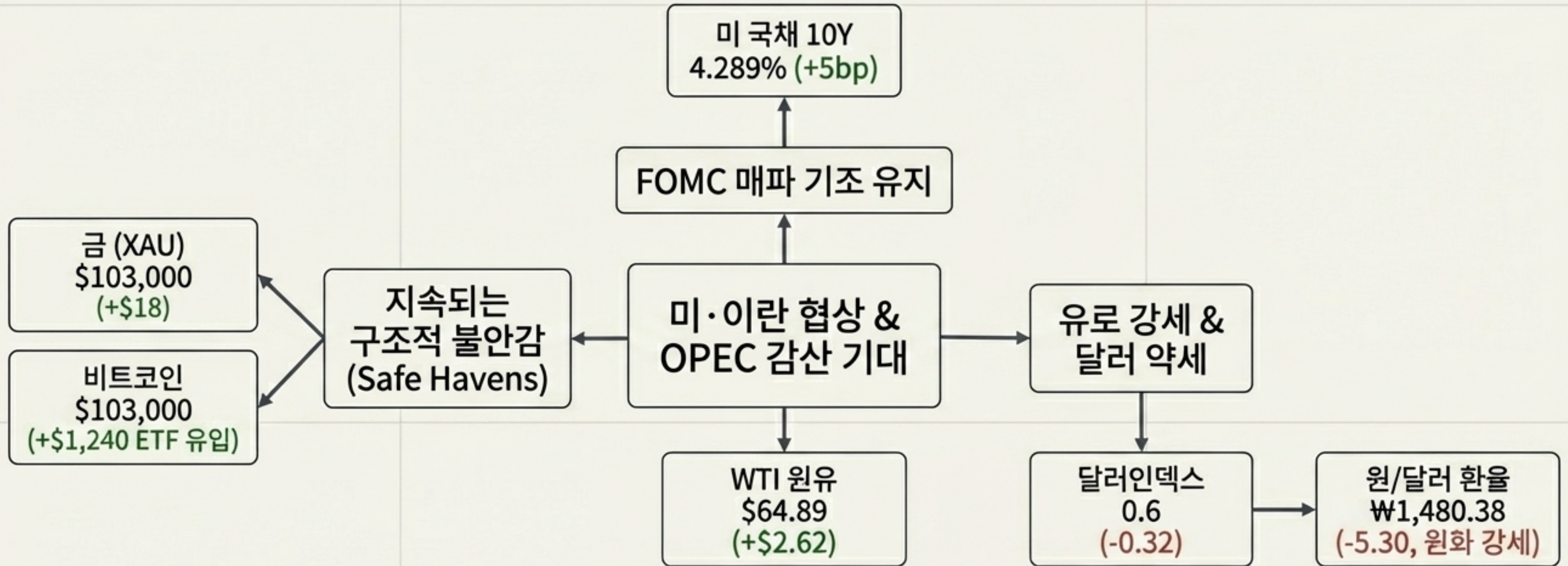
DOW: 50,000.00 (+0.00%)

NASDAQ: 23,183.74 (-0.02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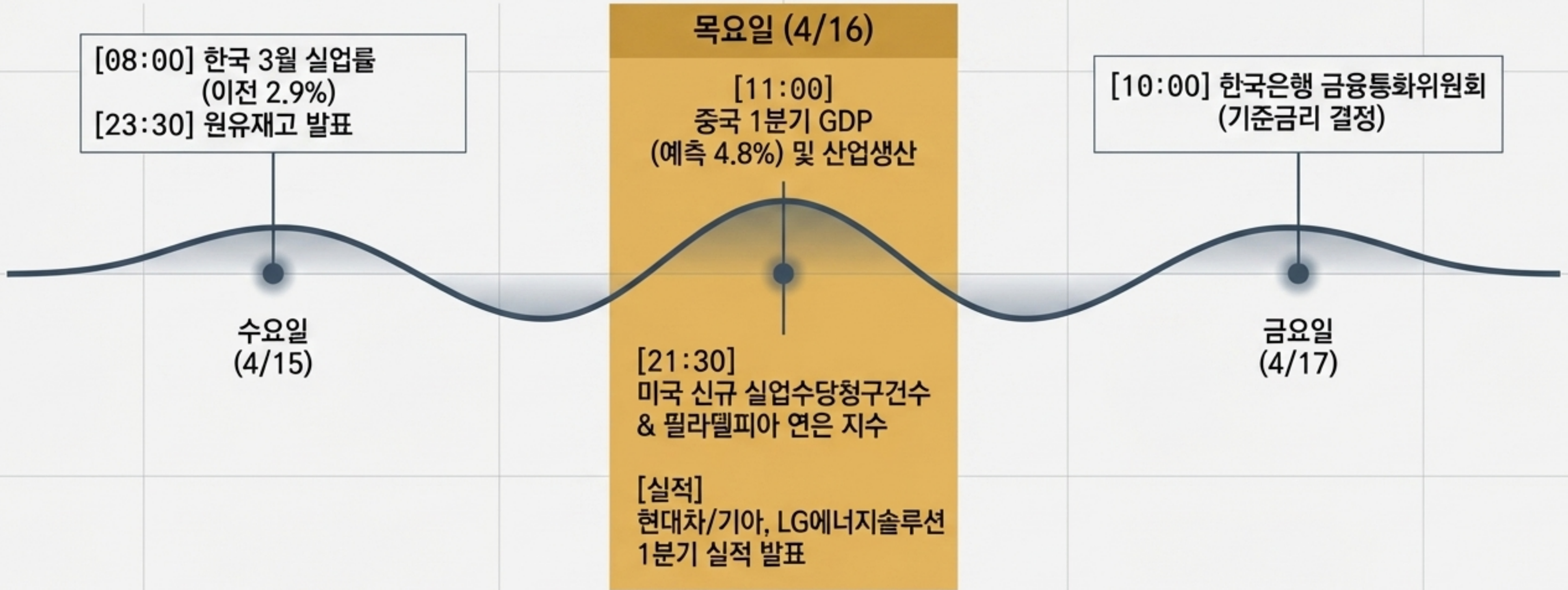
나스닥 지수 자체는 -0.02%로 약보합 마감했으나, 장중 1%대 상승을 기록하며 AI 및 반도체 주도의 랠리에너지가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했습니다. 부동산 섹터의 비정상적 급등(+7.42%)이 눈에 띕니다.

FICC 생태계: 안전자산 선호와 지정학적 안도의 팽팽한 줄다리기



달러 약세(환율 1,480원대 진입)가 외국인과 기관의 국내 증시 매수 여건을 조성하는 핵심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주간 매크로 변동성 레이더: 한·중·미 핵심 지표 발표 타임라인



목요일 중국의 GDP 발표와 미국의 고용 지표, 그리고 금요일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가 코스피 6,000선 안착을 결정지를 최대 분수령입니다.

핵심 관전 포인트 및 단기 포트폴리오 전략



코스피 6,000선 돌파

기관 순매수 지속 및 미·이란 협상 호조로 단기 매수 모멘텀이 극대화되었습니다. 6,000선 안착 여부에 주목하십시오.



환율과 매크로

미 10년물 4.29% 상승에도 달러인덱스 약세로 원/달러 1,480원 절상.

외국인 수급 개선을 위한 최적의 원화 매수 타이밍입니다.



인플레이션 헤지

WTI 64달러 돌파 및 원화 절상 효과를 고려하여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 헤지 관련 주식의 비중 확대를 검토하십시오.



바벨 전략 유지

위험자산(AI 반도체, 비트코인)의 강세와 안전자산(금)의 동반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 중국 GDP 발표 전후 변동성에 대비하십시오.